

美 “한국 개인신용정보 달라”

한·미 FTA 4차협상 첫날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한국에서 입수한 개인과 기관 등 금융고객의 신용정보 일체를 미국 또는 제3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향후 협상 결과에 따라

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 특히 미국은 금융전산망을 미국내 본사가 아닌 제3국인 인도로부터 아웃소싱하는 경우가 많아 미국의 요구대로라면 고객의 신용정보가 제3국으로까지 유출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금융실명법’, ‘신용정보법’을 들어 미국 본사나 자회사는 물론 제3자에게 전달, 유출할 수 없다고 반대하고 있다.



한미 FTA 4차 협상 첫 날인 23일 오후 한미 FTA 반대 집회를 마친 일부 시위대가 성천포구에서 수영으로 바다를 건넌 뒤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본사에 제공 요청...제3국 유출 논란

한국 ‘실명법·신용정보법’ 이유로 거부

서는 신용정보 유출, 사생활 침해 논란 등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23일 우리측 협상단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은 그간의 FTA 협상에서 “개인과 기관 등 한국 금융소비자의 개인신용정보를 미국 본사 또는 자회사(자산운용사 등), 관계사 등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우리측은 ▲ 고객의 사전동의 ▲ 국내 감독당국의 사전승인 ▲ 신용정보를 넘기는 기관에 대한 국내 감독당국의 검사 허용 등을 조건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며 24일부터 열릴 금융분야 협상에서 양측간 논란이 예상된다.

“그것 좀 벗으면 안돼?” “웬 참견이나” “영 이슬람 베일 논쟁, 폭동 부를 수도”



최근 영국에서 연일 뉴스의 초점이 되고 있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을 둘러싼 극단적인 논쟁은 자칫 인종 폭동의 빌미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영국 인종평등위원회 트레버 필립스 위원장이 경고했다.

필립스 인종평등위원장 경고

필립스 위원장은 일일신문인 선데이 타임스 22일자에 기고한 글에서 베일 논쟁이 “진실로 매우 추악한 어떤 것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5년 전 잉글랜드 북부의 인종 폭동과 지난해 프랑스의 무슬림 청년 소요 사태 같은 상황으로 비화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뿐만 내 놓고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니카브)을 둘러싼 논쟁은 잭 스트로 하원지도자가 지난 6일 얼굴을 가리는 베일은 대화를 어렵게 한다며 “이슬람 여성들이 베일을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함으로써 시작했다. 영국 내 이슬람 사회의 미묘한 문제를 건드린 그의 발언 후 일부 이슬

람인들은 이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이어 초등학교의 이슬람 여성 보조교사가 수업 중 베일을 벗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적처분을 당하는 사태가 일어나며 베일 논쟁은 종교적 차별 소송으로까지 번졌다. 여기에 토니 블러어 총리까지 가세해 얼굴 전체를 가리는 베일을 쓰는 것은 ‘분리의 표시’라며 이슬람 사회 밖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필립스 위원장은 인종과 종교에 대한 극단적인 논쟁은 2001년 잉글랜드 북부 번리와 올덤에서 일어난 백인과 남아시아계 청년간의 무력충돌 사태를 다시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우리는 병정해결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한·중국·미얀마 등 세계 최악 언론 탄압국

북한과 투르크메니스탄, 에리트레아 등이 세계 최악의 언론 탄압국으로 나타났다. 국제 언론 감시단체인 ‘국경 없는 기자회(RSF)’가 23일 밝혔다. 파리에 본부를 둔 RSF는 168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06 세계 언론 자유 지수’ 보고서에서 아시아 7개국의 언론 자유 지수가 바닥권에 처해 있으며 북한(168위)과 중국(163위), 미얀마(164위) 등이 이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는 “불행하게도 최악의 언론 탄압국들에서 어떤 것도 변화하지 않았으며, 북한과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쿠바, 미얀마, 중국의 언론인들은 우리에게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 생명과 구금의 위험을 무릅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부자되려면 화장실부터 고쳐라”

CNN ‘미국서 부자되기’ 수칙 소개

“집은 화장실, 부의 순으로 고쳐라”, “연 소득의 10%는 저축하라”, “신형 중고차를 사라” CNN머니 인터넷판은 미국에서 ‘부자 되기 수칙’ 25가지를 소개했다. 다음은 간추린 내용. <부자는 집 고치는 것도 다르다?> 집 팔때 값을 올려 받으려면 화장실, 부엌, 창문 순으로 고쳐라. 투자 수익률 면에서 화장실은 102%로 가장 높고, 부엌은 약 90%이다. 창문을 고치는 것도 집의 가치를 높이는 좋은 방법. 창문의 투자 수익률은 90%이며 에너지 절감 효과도 있다. <분수에 맞지 않는 무리한 집 구입은 금물=> 최근 집을 사기 위해 무리하게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지만 소득의 2.5배 이상을 집에 쓰지 말라. 주택 대출금은 연봉의 28%를 넘어서는 안된다. 교육비, 차, 신용카드 할부금 등 총 대출액은 연봉의 36%를 넘지 말아야 한다. 또 모기지(주택담보대출) 이자를 최소 1% 포인트라도 낮출 수 있다면 이자가 더 낮은 담보 대출로 갈아타라.

<돈 관리 수칙=>1926년 이래 미국내 주식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은 10.5%. 국제(5.1%)의 2배가 넘는다. 주식에 투자할 때는 장기 투자를 하고 투자 금액의 10% 이상을 한 곳에 집중하지 말라. 은퇴 후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해라. 저축은 일찍 할수록 좋다. 은퇴 후를 대비해 연 소득의 최소 10%는 저축해야 한다. 비상시를 대비해 최소 3개월의 생활비를 저축해 놓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소 6개월 생활비가 있어야 한다. 자녀의 대학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비의 3분의 1을 모으는 것이 적당하다. 신용카드 빚은 제때 갚아야 한다. 신용 점수를 높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요금 청구서의 납입 날짜를 지키는 것이다. 또 신용 한도의 30% 이상을 빌리지 않는다. <현명한 물품구매 요령=>차는 신형 중고차로 사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차의 가격은 출시 첫해가 지나면 30% 떨어진다. 또 전자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사지 않는다. 출시 3개월만 지나면 값이 떨어진다. 이와함께 전자 제품 구입시 AS 때문에 돈을 더 지출하지 말라. 전자제품 구매 때와는 반대로 비행기 티켓은 일찍 산다. 가장 싼 티켓은 가장 먼저 팔린다. /연합뉴스



1956년 10월 일어난 헝가리 국민들의 반소 봉기 50주년을 맞은 22일 헝가리 젊은이들이 부다페스트 중심가에서 소련군의 탱크에 맞서 맨몸으로 저항했던 봉기 당시를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潘외교 ‘헝가리 자유의 영웅’ 메달 받아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이 23일 초등학교 시절인 50년 전 헝가리와 맺은 인연으로 헝가리 정부가 수여하는 메달을 받았다. 반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에서 이시트반 토르자 주한 헝가리 대사로부터 ‘헝가리 자유의 영웅’ 기념 메달을 받았다.

1956년 발생한 헝가리 의거 50주년을 기념해 만들어진 ‘헝가리 자유의 영웅’ 메달은 의거를 지지한 공적이 있는 세계 각국 인사들에게 수여된다. 반 장관이 메달을 받게 된 것은 그가 12살의 초등학생이던 1956년 일어난 헝가리 의거 때 지지서한을 학생 대표 자격으로 낭독한 일이 계기가

됐다. 서한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 중인 헝가리 국민들을 도와주라’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다그 함마슬트 당시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내는 것이었다. 특별히 반 장관은 지난 1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 차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뒤 수락연설을 하면서 이 사연을 짧게 소개한 바 있다. /연합뉴스

“중 외환 보유고 4년후 2조달러 돌파”

중국의 외환 보유고는 현재와 같은 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2년 후인 2008년말 1조5천만달러를 넘어서고, 4년 후인 2010년말 2조달러를 돌파

할 것이라고 중국의 한 전문가가 전망했다. 베이징사범대학 금융연구센터 중웨이(鍾偉) 교수는 23일자 인민일보

해외관에 게재된 기고문에서, 외환보유고 증가 추세를 놓고 간단하게 추산한 결과임을 전제해 이렇게 전망하고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외환을 보유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도전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침하된 구조물복원 및 연약지반 강화공법의 신개념

무엇보다도... [Image of a construction site]

우려점-공법적 문제점

- 과시(하중)능력 부족, 불충분
- 작은공정 표면시공(19시간에서 수일)
- 시공시공률 100%가 보장된 모르타
- 물길 보충기전 방안

우려점-공법적 문제점

-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우려점-공법적 문제점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우려점-공법적 문제점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관공시공률 부족

LG JINJIN 상설할인마트 확장이전

가을·겨울 상품 다량입하

MAESTRO, DAKS, LOWE'S, TNGI, 39 ALTRIO, Inform, DAKS golf

LG JINJIN 상설할인마트 서빙점

☎(052)511-0248